

문 대통령 “추경 시급…野, 협력할 건 해야”

이틀째 ‘국회협력’ 주문…여야정 협의체 의제 제한없이 논의 황교안 “1대 1 회담” 고수 여전…민주-한국당 원내대표 회동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치가 때로는 대립하더라도 국민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뿐”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국회의 역할을 이를 연속 강조한 것으로 자유한국당에 국회 복귀의 명분을 제공하는 한편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직접적인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3년 차를 맞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조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정부 노력과 함께 국회 협력도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길 바란다. 정당 대표들과 만나 정치가 극단적 대립 정치가 아닌 대화·소통의 정치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바람도 같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에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및 별도의 5당 대표 회동을 수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한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으로, 작년 11월에 공식 출범을 발

표했지만 올 3월 개최하기로 약속한 2차 회의를 아직 열지 못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속히 정상화해 국회 정상화와 민생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의제 제한 없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예방과 함께 대외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 내수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예산으로, 야당도 협조해주시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제천에서 농가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5당 대표 회동 제안에 대해 “일 대일 대화로 진지하게 논의해야지 과거와 같은 보여주기식 회담은

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황 대표는 이어 “여러 당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초점이 흐려지고 논의해야 하는 내용이 논의될 수 없다”며 “대통령과 격의 없는 일 대일 대화를 통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안보를 지켜낼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고, 대통령 의견도 들어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협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저녁 짜장면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조속한 국회 복귀를 요청한 반면,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요구, 구체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두 원내대표의 물 밑 접촉이 이뤄지면서 조만간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바른미래 새 원내대표 女心이 좌우

오늘 선출…김성식 vs 오신환 판세 박빙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14일 박빙 판세가 유지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손학규 대표의 퇴진 여부가 걸려있는 만큼 경선 결과에 따라 당의 미래가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국민의당 출신의 김성식 후보는 지도부의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바른정당 출신의 오신환 후보는 ‘즉각 퇴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전체적인 판세는 김성식 후보와 오신환 후보 측이 각각 8~9표를 확보한 지지표로 계산하는 등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출신 여성의원 4명의 표심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내에서 ‘L’ (Lady 4)로 불리는 국민의당 출신 권은희·김삼화·김수민·신승현의원의 표향방에 따라 이번 원내대표 선거

당락이 좌지우지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들 4명의 여성의원들이 그동안 주요 사안을 놓고 비교적 통일된 입장을 보여온 만큼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공동 행동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두 후보 측에서는 ‘L4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김 후보 측에서는 여성의원들이 그동안 손학규 대표의 즉각적인 사퇴보다는 단계적 퇴진을 요구해왔으며 기대감을 끌고 있는 반면 오 후보 측에서는 당 지도부의 패스트트랙 강행 과정에서 이들 여성의원들이 ‘당권 반대파’로 선화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 후보가 원내대표로 당선된다면 손학규 대표의 조기 퇴진은 물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심사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대통령 “중소는 경제의 허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선언문 발표를 한 박영선 중소기업장관을 비롯한 협회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심재철 안쓰럽다”

“배신자 프레임 상쳐된 듯…저는 제2 인생 살겠다”

라디오 방송 출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4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39년 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수사 당시의 일을 계속 거론하는 데 대해 “안쓰럽다”고 평가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 ‘김여준의 뉴스공작’에 출연해 “당시 관련자들이 대놓고 그것에 관해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본인만 꺼내냐. 그때 일이 이 사람에게 굉장히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게 트라우마가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 정계복귀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데 대해 “그렇게 논평하는 분들은 본인의 욕망을 저에게 투사하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하겠다”는 뜻을 저를 갖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계복귀를 안 한다는 것을) 제가 증명할 필요가 있나”라며 “나중에 제가 혹시 하게 되면 욕하시고요. 하고 말고는 제 마음인데 저는 제 인생 살아가는 태도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정가리운지

‘농업인 월급제’ 국비 지원법 대표 발의

서삼석 민주당 의원

농산물 출하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 실시에 필요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양·무안·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 월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하 농어업인 삶의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일부 지자체들이



재정상 부담으로 희망 농가의 일부만 참여시키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을 가진 농업인으로 참여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었다. 서 의원은 “기존 배 위주의 월급제 적용 품목을 시설원예, 노지채소 등으로 확대하고 월급 상한액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농업인월급제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문 의장 “의원수 확대·개헌 국민 신뢰 필요”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 의장실 방문…“선거법 재논의 필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14일 국회 의원정수 확대 주장과 관련해 “대안이 다 마련돼 있다”며 “합의만 하면 짝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세비 50%를 감축하고 의원수 50명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그런데 국회가 국민 신뢰를 받을 때 결정해서 합의하면 국민이 박수를 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욕을 한다”며

“(국회의원) 숫자 하나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이) 진절머리를 내는 것은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신뢰를 가진다면, 아까 말한 대안도 합의만 되면 가능하다”며 “합의를 전제로 어느 정도 국민적 동의를 얻는 안이 나오면 관련 법안은 하루면 바로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개헌도 마찬가지로”라며 “제왕적 권력 집중 현상은 국민이 실증을 내니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 훗날 민심의 합의사항”이라며 “그런데 내각 책임제

로 가서 국회가 모든 것을 우회시켜 하는 것에는 국회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반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관련 “패스트트랙은 합법적 절차의 시작으로, 계속 논의해 대화로 합의를 도출하라는 뜻”이라며 “지금 시작인데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문 의장에게 “사법농단의 경우 대법관을 늘렸어야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대법관 수를 제한해버리니 특권이 생겨서 생긴 것”이라며 “국회의원도 세비

50%를 감축하는 대신 (숫자들) 좀 늘리면 특권이 줄어들어 오히려 국민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이 자유한국당과 잘 합의해 처리되면 좋겠지만 지금 안은 ‘반쪽짜리’라며 “개헌의 불씨를 살려서 권력구조 부분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궁합 맞는 부분을 같이 논의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찾아 “만약 국회 정상화가 되고, 한국당이 선거법 협상에 참여하게 되면 원포인트 개헌까지 꺼내어 그에 맞는 선거제 개편 문제를 같이 다루면 선거법 협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역사 현장에서 독서 토론하기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역사는 살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사 이해는 몸과 실천적 차원에까지 올라가야 한다. 특히 5·18민주혁명의 역사 이해는 더욱 그러하다. 5·18민주혁명의 올바른 정신과 가치를 몸과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학자, 작가들의 강의를 듣고, 이어서 강사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 기간** 2019년 5월 23일, 24일, 30일, 31일 (총 4회)
- 시간** 오후 3시 ~ 6시
- 장소** 광주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동구 금남로 221)
- 대상** 중3 + 고등학생(20명) + 학부모(10명)
- 지원** 학생 1인당 4만원 교통비 지급(한 단체 당 최대 80만원 지원) + '책' 무료 배부
- 신청** ☎ 010-5205-5668 (문자로 연락 바람·단체 지원 환영)
- 교육내용**

시 간	내 용	담당강사
1 5월23일(목)15~18시	1. 인문강의 청년의 용기와 도전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한승원박사 3.토론:박해웅박사
2 5월24일(금)15~18시	2. 소설강의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박성천박사 3.토론:박해웅박사
3 5월30일(목)15~18시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박성천박사 3.토론:박해웅박사
4 5월31일(금)15~18시	3. 조별토론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정정희박사 3.토론:박해웅박사

●주관 | 소크라테스대화연구소 ●주최 | 전라남도교육청 ●후원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사)인문지행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